

## ‘조류독감’ 오리 살처분 광주·전남 ‘방역 비상’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영암 이어 나주 오리농장도 검출  
오리 3만2천여마리 살처분  
함평 고막원천 야생조류서도 확진

영암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인접 지역이자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의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했다. 두 농장 모두 특정 계열사 소속으로 확인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에서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될 경우 농가 피해와 방역당국 부담이 겹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8일 “나주시 세지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사 환축(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영암 시종 오리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으로, 전남도가 계열사 소속 도내 농가 60곳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H5형 AI 항원(바이러스)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발생농장의 검체를 농축산검역본부로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조종 대응팀을 현장에 보내 출입 통제와 함께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3만2000수는 살처분됐다. 또 인근 지역 가금농장, 축산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AI 의심 사례 발생 농장이 속한 계열사 소속 가금농장에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전남도는 또한 이날부터 도내 오리 도축장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출하 전 검사와 도축장 검사에 더해 오리를 실은 차량이 머무는 계류장 등 도축장 내 환경 검사도 진행한다.

방역지역으로 설정된 발생농장 반경 10km에 드는 나주와 영암지역의 가금류 농가 65곳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정밀 검사를 시행한다.

전남도가 이날 의뢰한 나주 오리 농장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농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될 경우,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오리 농가 10곳(45만여수), 닭 사육 농가 4곳(29만여수)을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간다.

울 들어서 전국에서는 정읍(육용오리), 경북 상주(산란계), 영암(육용오리),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전국 사육 오리의 절반가량이 밀집한 전남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5일 영암군 시종면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 나주에서 의심축이 확인,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전남에서는 오리 16만4000수, 닭 35만9000수 등 닭·오리 52만여수가 살처분됐다.

한편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함평 고막원천과 경기 오산 황구지천, 충남 논산 노성천, 경북 경주 현상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7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는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방역도 강화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살처분, 말로 다 못할 고통 8일 오후 나주시 세지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이 검출됐다. 방역관계자들이 3만2000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옛새만에 두자릿 수 증가  
감염 경로 밝혀지지 않은 환자도  
상무대 관련 확진 30명으로 늘어

광주·전남에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광주에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미확인 사례도 늘면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2·14면>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760~762번 등 3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등록됐다. 지난 7일에는 밤사이 4명의 확진자가 더해져 총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난 1일 10명을 기록한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옛새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이다.

760번은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광주 751번)의 접촉자다. 761번도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62번도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762번을 포함해 최근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7명의 동선과 접촉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 11월 초 시작된 지역 4차 대확산 이후 아직까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만 모두 25건에 이른다. 이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킨 감염원이 지역 내 어디에선가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접촉으로 인한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또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한동안 일상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어 대규모 지역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1명(영광·전남 455번)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난 7일엔 장성 상무대 자가격리자 2명을 포함해 7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확진자 중 2명은 상무대 내에서 격리 중이던 군인들과, 나머지는 광주와 전남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 등으로 분석됐다. 상무대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늘어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마스크쓰기와 손씻기를 비롯한 외출 자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민주, 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사위 안전조정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4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전조정의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결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이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방침

밖에도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안전조정의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의 방법으로 본회의 통과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법안소위 심사에서는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원안을 유지했지만, 전체회의에선 여야 합의를 거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한을 조정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일괄적 처리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공사장 된 광주 도심 도로 ‘화물차 공포’ ▶6면
- 광주FC, 감독·단장 없고 대표 사의 ▶18면
- 임영진 교수 ‘마한의 역사 재조명해야’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점서 (062)226-0001 & 함평 세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 (마해동)  
남부인공대학교 광주 전사점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명대로 516 (수원동)  
소문 세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원대로 603 (백산동)  
수원 세비스센터 (062)94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평로대로 520 (수원동)

장비 표준 장비 및 옵션  
E 220 4M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변속, 복합연비:13.2도/실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동급중,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M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변속, 복합연비:13.2도/실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동급중,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변속, 복합연비:10.0도/실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동급중,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변속, 복합연비:10.0도/실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동급중, 복합CO2 배출량:1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